

보건계열 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오은환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A Qualitative Study on Job Training Stress for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Healthcare

Eun-Hwan Oh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Hyupsu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job training stress for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a major in healthcare.

Methods: For the analysis, 11 fourth-year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job training at healthcare-related agencies were interviewed.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May 2016 to June 2016 for 3 weeks.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semi-structured open-ended questions and analysed by the method of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Results: The main reasons for the job training stress for students fell into two personal and environmental domains. And the domains were analyzed by 12 categories in-depth. Students felt stress by tasks, personal relationship, and burden of duties.

Conclusions: To deal with job training stress, students took emotional and behavioral treatments such as positive thinking, communication, and so on. Universities shoul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ining agencies and training programs to lighten the stress for students.

Key words: Job Training Stress,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Healthcare, Qualitative Study

접수일 : 2017년 5월 1일, 수정일 : 2017년 6월 28일, 채택일 : 2017년 7월 31일

교신저자 : 오은환(1833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Tel: 031-299-0753 Fax: 031-297-3697 E-mail: oh@uhs.ac.kr

I. 서론

2015년 OECD 교육지표에서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 즉, 대학 진학률은 68%로 OECD 국가 중 1 위이다. OECD 평균은 41%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청년리포트, 2016). 고등교육 이수는 인적자본 축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수 있으나,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 진로 결정 등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과제가 주어진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업은 적응의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것은 곧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경필과 심미영, 2015).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개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변인을 스트레스 완충자원이라고 하였다(Hill 등, 1997). 이중 자아존중감,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자기효능감, 내외 통제성과 같은 개인적 자원이 있고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자원이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개인적, 환경적 변인에 따라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해 탄력성을 보이거나 취약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취업과 관련되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취업의 전 단계로 졸업 전 실습기간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서의 실습경험이 향후 실제로 취업했을 때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Midgley, 2006; Kim JS 등, 2009). 실습 스트레스의 개인적, 환경적 변인에 따른 임상실습을 필수로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김선영과 서원경, 2010; 김정수, 2012; 김은영과 양승희, 2015), 보건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건계열 대학생들도 의요기

관과 같은 임상현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간호학이나 의료기사 관련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보건계열 전공 학생들에게도 의료기관 등과 같은 현장에서의 실습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 학과의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에 장래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 고민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학 후 전공수업과 진로탐색을 통해 취업을 결정하는 반면 보건계열 학과의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부터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직종을 기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박선민, 2009).

보건계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펴볼 때,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실습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보건계열 대학생의 현장 실습과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최근 들어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오예슬과 오은환, 2013). 그러나 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다양하고 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층인터뷰를 통해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의 4학년에 재학 중인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 3명, 여학생 8명으로 평균 연령은 23.5세이다. 연구 대상자의 인적요인 기본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적요인

연구대상자	성별	나이	학년	전공	전공 만족도	관련분야 자원봉사 유무	희망직업
A	여	23세	4	보건관리학과	중	있음	병원행정직, 공무원
B	여	23세	4	보건관리학과	중	있음	병원행정직
C	여	23세	4	보건관리학과	중하	있음	병원행정직
D	여	23세	4	보건관리학과	중	있음	국제보건 NGO
E	여	23세	4	아동보육학과 보건관리학과 (복수전공)	중하	있음	아동보건 전문가, 보건교육사
F	여	23세	4	보건관리학과	중	있음	보건직 공무원
G	남	25세	4	보건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	상	있음	보건직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H	여	23세	4	보건관리학과	중	있음	병원행정직
I	여	23세	4	보건관리학과	중	있음	병원행정직
J	남	25세	4	보건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	중하	있음	CEO
K	남	25세	4	보건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	중	없음	미정

보건관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10명이었으며, 이 중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이 3명이었다. 나머지 1명은 아동보육학과 학생으로 보건관리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었다.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관련 분야의 자원봉사 경험이 있었으나, 실습과 관련된 경험은 많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환경요인과 관련된 사항은 <표 2>

와 같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습한 학생은 1명, 종합병원에서 실습한 학생은 5명, 종합병원의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습한 학생은 1명, 보건관련협회에서 실습한 학생은 1명, 보건소에서 실습을 한 학생은 3명이었다. 실습 기간은 대체로 3주였으나 보건소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경우, 학기 중 일주일에 하루씩 약 3개월 동안 실습을 수행하였다.

〈표 2〉 실습과 관련된 환경요인

연구대상자	실습기관	실습기간	실습내용	담당자직급
A	종합병원	약3주	의무기록실, 응급실 원무부서	주임
B	상급종합병원	3주	입퇴원 창구의 사무실(8일) : 각 층별 담당자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배움 창구(7일) : 직원들의 업무처리를 지켜봄, 서류에 대한 처리과정을 보조	계장
C	종합병원 건강증진센터	약3~4주	차트정리, 문진표 작성 안내, 진료과 안내, 병원의 전체적 동선 안내, 직원들을 도와 검진 프로그램 다루기(검진 예약자 조회, 자격조회, 예약)	사원
D	보건관련협회	약3주	팀별 교육, 개인교육, 모니터링 업무를 주로 수행, 절주동아리의 올해 사업운영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함	팀장
E	종합병원	약3주	담당자분 일손 부족에 도움, 의무기록실 사무보조, 환자 동선 정리	사원
F	종합병원	약3주	원무과 일의 보조, 보험과 관련된 차트정리, 영수증 정리	과장
G	보건소	약3개월	텃밭 가꾸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획, 건강지도자 교육	팀장
H	종합병원	약3주	어셈블링 작업, 환자차트 정리, 알레르기 검사	사원
I	종합병원	약3주	원무과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을 지켜봄, 잡일(복사, 스캔)	대리
J	보건소	약3개월	텃밭 가꾸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획, 건강지도자 교육	팀장
K	보건소	약3개월	텃밭 가꾸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획, 건강지도자 교육	팀장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면담의 형태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존 연구들에서도 10명 내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나지은, 2011; 김희수 등, 2013; 오예슬과 오은환, 2013).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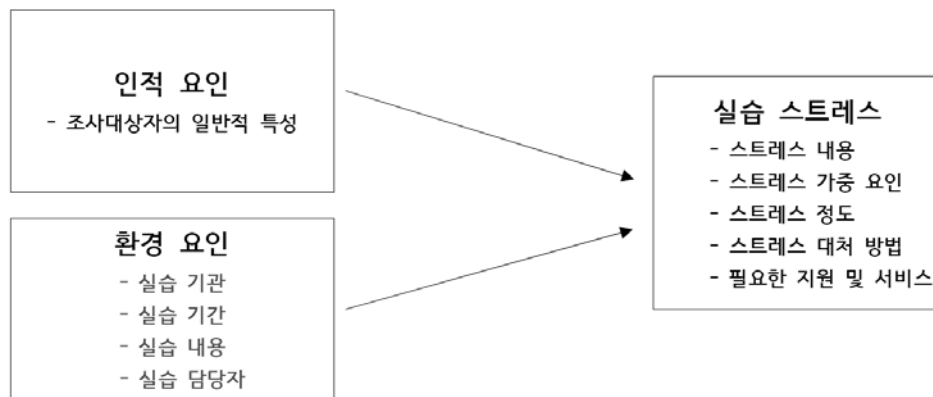
료수집 기간은 2016년 5월 23일에서 6월 10일까지 총 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반구조화 면접을 통해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질문내용들을 머리 속에 간직한 채 대화형식으로 질문을 해나가는 비구조화 면접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전문연구자가 아니면 실시하기 어려우며 분석시간이 많이 걸려 반구조화 면접으로 대부분 실시된다. 반구조화 면접에서는 준비된

질문목록으로 진행하며 답변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추가하기도 하고 질문순서를 바꿀 수 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논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녹음되는 내용의 비밀과 익명성의 보장에 대해 강조하였고 동의를 구하고 시작하였다. 편안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면접 조사 내용에서 박선민(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인적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연구 대

상자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인적요인으로 보았고, 오예슬과 오은환(2013) 연구를 통해 취업관련 특성을 실습관련 특성으로 변환시켜 환경요인으로 보았다. 연구대상자들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건계열에서 실습은 취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인적요인과 환경요인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그림 1>.



<그림 1> 연구 모형

인적요인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학년, 전공, 전공만족도, 관련분야 자원봉사의 유무, 희망 직업을 담고 있으며, 환경 요인에는 실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인들로 실습기관, 실습기간, 실습내용, 담당자 직급이 포함된다.

연구주제는 실습 스트레스 내용, 실습 스트레스 가중요인, 실습 스트레스 정도, 실습 스트레스 대처,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검증된 선행논문을 활용하였다. 실습 스트레스의 내용과 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주영애(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실습 스트레스의 내용을 분석하고, Lazarus와 Folkman(1984)이 제시한 문제중심 대처차원과 정서중심대처 차원으로

로 실습 스트레스의 대처방법을 참고하였다. 실습 스트레스의 가중요인은 박선민(2009)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실습 스트레스의 정도는 김희수 등(2013)을 참고해 실습스트레스를 상중하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는 김은실과 손현동(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Hill 등(1997)이 개발한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적용하였다.

면접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녹음된 파일의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정리하였다. 내용에서 중복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위범주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상위범주를 찾아내었다. 이와 같은 단계별 범주화는 질적 자료를 추상화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윤건수, 2013).

Ⅲ. 연구결과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스트레스를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결과

연구주제	중심영역	내용
실습 스트레스 내용	업무	바쁨, 업무 부담, 단순작업 반복 등
	관계	환자의 불만이 있음, 실습지도자와의 관계 불편, 눈치가 보임 등
실습 스트레스 가중요인	내적요인	일 처리 미숙, 일에 대한 압박감, 내성적인 성격 등
	외적요인	환자의 폭력성, 지도자의 눈치, 직원간 잦은 갈등 목격 등
실습 스트레스 정도	상	여성비하 발언
	중상	전공 커리큘럼과 실습 내용이 상이함, 형식적인 실습과정, 상황대처 능력 미숙 등
	중	취업과 연계가 어려움, 희망진로와 다른 기관에서 실습함 등
	하	생각했던 것과 업무내용 상이함
실습 스트레스 대처 방법	정서적 대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순응하기, 흘려듣기 등
	행동적 대처	친구와 대화, 다른 실습생과 유대감 형성, 음악감상, TV 시청 등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개인적 지원	학과에서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 실습과 관련된 구체적 인 매뉴얼 개발 등
	교육적 지원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개편 등

1. 실습 스트레스 내용

실습 스트레스 내용의 중심영역을 업무와 관계로 나누어 보았다. 업무는 실습 업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스트레스와 직원, 환자 또는 실습생 간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1) 업무

업무에서는 바쁨과 업무 상이함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업무 부담과 단순작업 반복, 직원의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 환경 열악, 실습의 기간이 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할 때 선생님들께 여쭙보고 싶은데 굉장히

바빠 보이고, 그렇다고 그냥 해버리기에다 나중에 실수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데 질문하기도 곤란한 분위기였으며, 환자가 너무 많아 직원에게 물어볼 틈도 없이 너무 바빴음.” (참여자 A, C)

“담당 직원이 휴가로 인해 자리를 비워서 그 자리를 잠시 맡게 되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환자분께서 오셔서 따지시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너무 힘들었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음.” (참여자 B)

2) 관계

관계에서는 환자불만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실습 지도자와의 관계, 실습생으로서의 한계 등 다양한 내용이 실습 스트레스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다보니 짜증을 내는 사람이 많았고, 불만환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컸음. 직원들이 환자들과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다보니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았음.” (참여자 C, I)

“계획을 세우거나 사업을 수행할 때 실습생으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고, 실습담당자는 교육이라는 취지로 많은 얘기를 해준다고는 했지만, 실습생 입장에서는 계속 다그치는 것 같아서 많이 불편했고, 당황스러운 적이 많았음.” (참여자 F, J)

이 외에 실습생에 대한 배려가 없어 소외감을 심하게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담당자가 식사시간이나 회식 때에도 직원들만 챙기고 실습생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해주지 않아서 소외당하는 기분을 자주 느꼈음. 심지어 일도 안 시키실 뿐더러 본인들끼리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음.” (참여자 E)

2. 실습 스트레스 가중요인

실습 스트레스 가중요인의 중심영역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누어보았다. Lazarus와 Folkman (1984)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의 상황을 내적과 외적인 요구로 다루었는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서 인지적, 행동적 노력과 관련된다(강인구와 최혜경, 1998).

실습 스트레스의 내용과 가중요인의 내용이 겹치는 것 같지만, 어떤 응답자에게 단순한 스트레스 원인이 다른 응답자에게는 가중요인으로 나타나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대상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실습 스트레스에서는 내적요인보다 외적요인

이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내적요인

내적요인으로는 일 처리 미숙, 압박감, 성격, 지리적 거리, 반복되는 일상이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일 처리하는데 아직 미숙하고 혹여나 잘못할까 봐 불안해서 직원들에게 자주 찾아갔었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오히려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도 더 커졌음.” (참여자 A)

2) 외적요인

외적요인으로는 환자의 폭력성, 동정심, 실습 자리, 계속되는 면담, 무관심, 실습시간의 변동, 지도자의 눈치, 잦은 갈등의 목격, 의견수렴의 차질이 실습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불만을 표현하는 환자들이 많았음. 예약 시간이 지났는데도 늦게 와서 검진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문진표를 찢어버리고, 담당직원에게 화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면서 나중에 나도 겪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 두려워졌음.” (참여자 C)

“사무처장의 지나친 관심과 잦은 면담이 스트레스였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쳐다보았고 그럴 때마다 면담을 할 것 같아서 심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했음.” (참여자 D)

3. 실습 스트레스 정도

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상중하로 물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참여자들은 스트레스의 정도를 중간 이상으로 느꼈지만 완전히 상이라고는 느끼지 않아 중상의 경우도 스트레스의 정도 범주에 넣었다. 최대한 참여자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정

도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 스트레스의 정도를 답변에 따라 상, 중상, 중, 하로 나누었다. 실습 스트레스의 정도는 중상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이 3명, 상이 2명, 하가 1명으로 나타났다.

1) 상

실습 스트레스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차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직원의 경우 다른 남자직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지만, 여성에게는 상대적으로 비하하는 어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무처장이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와서 조직체계가 잘 형성되어있는데 여자들은 안 되어있다’, ‘남자들이 벌어진 돈으로 여자들이 흥청망청 쓴다’ 등의 표현을 자주했는데, 실습 업무와 전혀 관계도 없는 내용이었음.” (참여자 D)

2) 중상

상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의 정도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전공 커리큘럼과 실습 내용의 상이함, 형식적인 실습과정, 상황대처능력 미숙 등이었다.

“실습은 경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실습을 하면서 얻어가는 게 없다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음.” (참여자 K)

“실습을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형식적인 실습으로 느껴져서 아쉬움이 컸음. 열심히 하려는 생각으로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실습기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실습 자체를 형식적으로만 생각했음.” (참여자 A)

“직원들이 너무 바빴고 업무 환경이나 분위기 면에서 방치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적이 여러 번 있었음.” (참여자 I)

3) 중

실습 기간 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는 정규직은 주로 남성 위주였다는 점과 원무창구는 대개 비정규직 여성이 많다는 점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했던 부서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배우는 것에 대해 흥미가 낮은 것이 스트레스 가중요인이 되었다.

“창구는 거의 다 계약직이었고 사무실에는 정규직이 많았는데, 사무실 직원들은 거의 다 남자여서 접근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음.” (참여자 B)

“원무과나 행정직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실습을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다보니 원래 배우고 싶었던 원무전산프로그램이나 원무과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음.” (참여자 C)

“희망진로가 병원의 원무과는 아니었는데, 실습기관을 구하지 못해 원무과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원하는 희망진로와 다른 기관을 선택한 것이 의욕도 떨어지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음.” (참여자 F)

4) 하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지만, 업무내용이 기대했던 것과 상이했던 점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으로 취직하고 싶은 생각에서 보건소의 행정적인 업무를 배우는 것이 유익

할 것이라 생각하고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실습내용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대부분 실외에서 진행되었고 실습보다는 자원봉사라는 느낌을 더 받아서, 기대한 만큼 배울 기회는 없었음.” (참여자 G)

4. 실습 스트레스 대처

실습 스트레스 대처의 중심영역을 정서적 대처와 행동적 대처로 나누었다. 응답자의 다수가 정서적 대처보다는 행동적 대처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정서적 대처에서는 긍정적 생각, 순응, 흘려듣기로 답변하였고, 행동적 대처에서는 다양한 답변 중에서도 대화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1) 정서적 대처

정서적 방법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나 대화를 흘려듣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트레스를 계속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최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순응하려고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많았음.” (참여자 D, I)

2) 행동적 대처

행동적 대처 방법으로 친구나 동료 실습생과 대화를 하거나, 운동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음악감상, TV 시청, 음식물 섭취 등의 응답도 있었다.

“친구들을 만나서 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잊어버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같이 실습한 친구하고 퇴근 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날그날의 스트레스를 바로 풀었음.” (참여자 C, H)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음.” (참여자 J)

5.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실습기관과 학교에서의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해서 물었다. 참여자들이 원하는 지원 및 서비스의 중심영역을 개인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으로 나누었다. 응답자들은 교육적 지원보다 개인적 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1) 개인적 지원

개인적 지원에는 학과에서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다양한 실습기관 연계, 실습기관에서의 실습생 의견수렴, 구체적인 실습 교재 개발, 실습 시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 중 다수의 응답자가 학과에서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가 여러 개의 병원이나 기관과 협력을 맺어서 그곳에 실습생들을 보내주면, 기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실습기관에서도 실습생이 더 열심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음.” (참여자 H)

“기관에 대한 리스트가 정리되면 병원의 환경, 담당자, 이전 실습생들의 만족도 등과 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음.” (참여자 E, G, J)

“실습을 대개 3학년 겨울방학에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서 3학년 1학기 때 해보고 2학기 때에도 희망자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실습의 기회를 많이 부여해주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해보고 경험적인 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됨.” (참여자 K)

2) 교육적 지원

교육적 지원에는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개편, 사람을 대하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오리엔테이션은 시기를 당겨서 실시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원한다고 하였다.

“지금의 오리엔테이션은 실습 시기 직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음. 실습을 다녀온 선배들의 경험을 들으면 좀 더 도움도 되고, 마음의 준비도 될 수 있을 것 같음.” (참여자 A)

“실습기관에서 업무를 많이 배운다기 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음.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이든 직접적인 경험이든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교육적으로 이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음.” (참여자 F)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반구조화면접의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습 스트레스의 내용 및 가중요인, 정도, 대처방식 및 지원 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12개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적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나누었다. 인적요인 중에서도 전공의 만족도와 희망직업이 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요인에서는 자신이 생각한 희망진로와 다른 실습기관에 가게 된 것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과에서 복수전공으로 보건학을 전공하는 참여자와 보건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복수전공을 하는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거나 희망직업이 보건학이 아닌 다른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실 등(2013)

은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4학년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조의영 등(2016)은 환경요인에 있어 실습이 앞으로의 취업과도 직결된다는 참여자들의 생각과 인턴십과 같은 실습제도는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실습은 취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학과의 커리큘럼 구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실습 스트레스의 내용 및 가중요인, 정도, 대처방식 및 지원 서비스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의 실습 스트레스 내용을 업무와 관계로 분류하였고 환자불만, 바쁨, 업무 상이함, 눈치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 대다수가 병원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원무과 창구에서 실습하였다. 접수와 수납을 담당하는 원무과의 경우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시 가장 먼저 만나게 되고, 병원절차의 마지막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환자들이 해소하는 불만을 봐야하고 이를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습 스트레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애(2006)의 연구에서도 고객에 대한 불만이 스트레스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혜와 김규수(2008)의 연구에서는 보육실습의 경우에는 타인보다도 본인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였으며, 그 다음이 보육 유아와의 문제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습대상이 성인이 아닌 유아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실습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의 중심 영역을 내적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나누었다. 연구결과, 내적요인보다는 환경요인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민(2009)의 연구에서도 인간의 환경요인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도 외부환경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예슬과 오은

환, 2013).

셋째, 응답자들의 실습 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 봤을 때 대부분 중간이상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하기에 좀 더 높은 스트레스를 느꼈고 상이라고 보기엔 낮다고 답변하여 이를 중상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주로 업무와 관련된 답변이 많았는데, 실습의 수행이 자신이 생각한 업무와 달랐고 형식적으로 수행된다고 하였다. 홍성실 등(2013)의 연구에서도 보건실습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관찰위주의 제한된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업무의 상이함을 느끼면서 형식적인 실습 수행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과 전환점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 보육실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실습생들이 단순 잡무 보조 등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박성미, 2002), 이는 실습기관과 실습생 간 현실적인 괴리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의 실습과 관련된 연구(소미현과 조윤희, 2016)에서도 대인관계능력, 사회적 지지, 실습만족도 항목 모두 보통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로 관련된 전공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실습내용이나 실습환경이 현실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넷째, 대상자들의 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정서 중심적 대처와 행동 중심적 대처로 분류하였다. 정서적 대처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응답자가 있었고, 상황 자체를 순응하거나 흘려듣는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행동 중심적인 대처에 대해 응답을 하였는데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긍정적 답변

을 보이는 참여자가 있는 반면, 술을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부정적 답변을 보이는 참여자가 있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주영애, 2006; 오예슬과 오은환, 2013).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의 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지원 및 서비스는 교육적 지원과 개인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는데, 교육적 지원보다는 개인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전 학교에서 진행되는 실습오리엔테이션의 시기를 앞당겨서 학생들이 좀 더 실습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대다수가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원무과 자체가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많고 환자들의 불평과 불만을 많이 듣게 되는 위치이지만,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사람을 대하는 교육에 대한 강의가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참여자들의 응답이 많았던 개인적 지원에서는 실습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실습기관 연계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학교에서 협력기관이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면 학생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습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실습생들이 실습기관에 대한 선택과 적응도를 높여 실습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정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보건계열학과 4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계열학과 대학생들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생과 지방권 대학생 간의 실습 스트레스 차이와 3학년 학생과 4학년 학생 간에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가 갖는 한계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한 실습 스트레스 부담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학년과 저학년 간에 스트레스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희와 황은희, 2016).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 실습이 취업과 연계된다
는 점과 학생들의 실습 경험이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건계열학과 대학생들
의 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
서 향후 실습 학생지도 및 실습 지원 측면에서 기
초가 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강인구, 최혜경. 여성의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개인 내적 요인들의 중재적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1998;36(4):95-108.
2. 고경필, 심미영.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15(6):379-391.
3. 김선영, 서원경. 보육실습 현장에서 실습생이 들려주는 스트레스와 대처. *아동학회지* 2010;31(2):135-150.
4. 김선훈, 김규수. 유아교육기관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인식과 수행에 따른 예비교사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2008;17(2):223-233.
5. 김은실, 손현동. 장애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009;16(20):149-178.
6. 김은영, 양승희.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015;21(4):417-425.
7. 김정수. 간호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의료커뮤니케이션* 2012;7(2):94-102.
8. 김희수, 안정선, 배진형. 사회복지실습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13(11):740-753.
9. 나지은. 협력전략을 통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1.
10. 박민희, 황은희.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 피로와 우울; 이론수업과 임상실습 시 비교.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16;17(3):103-116.
11. 박선민.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신체 및 정신 증상.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9.
12. 박성미. 보육실습에 대한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조사. *영유아보육연구* 2002;8:12-143.
13. 소미현, 조윤영. 경기지역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사회적 지지와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16;17(3):117-129.
14. 오예슬, 오은환.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2013;14(1):25-36.
15. 윤건수. 경험의 의미와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 근거 이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3;17(2):163-200.
16. 조의영 외 5명.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문화기술의 융합* 2016;2(1):35-43.
17. 주영애.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 실습생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6.
18. 청년리포트. 대학 내 길 갔지만... 고졸로 살기 쉽지 않아요. *KBS 뉴스* 2016.4.19.
19. 홍성실, 홍정아, 전원희. 간호학생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13(6):361-369.
20. Hill CE, Thompson BJ, Williams EN.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997;25:517-572.
21. Kim JS, Sun JJ, Kim H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2009;10(1):63-76.
22.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 1984.
23. Midgley K. Pre-registration student nurses perception of the hospital-learning environment during clinical placements. *Nurse Education Today* 2006;26(4):338-345.